

2020
spring
vol.27

봄호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M A G A Z I N E
CGNTV

개국 15주년 특집 다큐

땅끝의 증인들

바누아투 원천희 선교사

목차

Contents

다큐멘터리

2 개국 15주년 특집 다큐 <땅 끝의 증인들>

유튜브 콘텐츠

4 청년들을 위한 진짜 인터뷰 <찐터뷰>
6 '별' 난 아이들을 '별' 처럼 빛나게 <계도왕>

개국 15주년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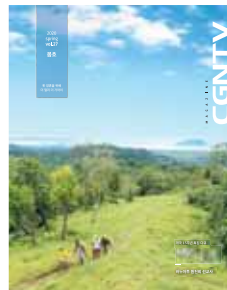
Special

8 개국 15주년, 미디어 선교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 CGNTV 이웅경 대표
11 우리는 미디어 선교사입니다! - CGNTV 외국인 직원(아나/오린함/카오리)

국내뉴스 / 해외뉴스

News

16 국내
18 해외
20 편성표
22 에필로그 - 영화교회 윤광서 담임목사



COVER STORY

<땅 끝의 증인들> 총 3편 중,
2편 '바누아투로 간 사나이의 한
장면. 부족들을 향해 가는 원천희
선교사의 모습을 담았다.

CGNTV Magazine은

분기별로 발행되는 계간지입니다.

발행일 2020년 3월 29일(통권 제 27호)
발행처 CGNTV(www.cgntv.net, 02-796-9800)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269 CGNTV
발행인 이재훈
대표 이웅경
편집인 함태경
기획 CGNTV 커뮤니케이션팀
진행·편집 정원이, 추정현, 임예은
글 조인애
그림 이화선
사진 어대준, 추정현, 박민수
디자인·인쇄 페이지원(02-757-3111)

개국 15주년 특집 다큐

땅 끝의 증인들

아무도 찾지 않는 이들과 더불어 산 한국인 선교사들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그저 '증인'으로 부르심을 입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그곳이 어디든 떠났던 사람들. CGNTV는 개국 15주년을 맞아 '땅 끝의 증인들'로 사는 그들을 카메라에 담았다.

개국 15주년 특집 다큐 <땅 끝의 증인들>은 총 3편으로, '그리스 테살로니키' 김수길, 조숙희 선교사, '바누아투' 원천희, 김난주 선교사, '필리핀' 故 박누가 선교사의 사역 현장을 담았다.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들어간 그들의 선교 현장에는 유럽 전역에 흩어져있는 소외된 집시들, 외딴 정글과 산간 마을의 원주민들이 있었다.



1편

집시를 사랑한 부부

- 그리스 김수길, 조숙희 선교사

3월 29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그리스 '까메리니'에는 집시들이 모여 산다. '집시'라고 하면 흔히 뮤지컬 '카르멘'에 등장하는 매력적인 여인이나 자유로운 방랑자를 연상하기 쉽지만, 사실 그들은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소외된 종족이다. 까메리니의 집시들도 그리스 사회의 차별과 편견 탓에 도시 외곽에 모여 살고 있다. 1997년 파송된 김수길, 조숙희 선교사는 지난 23년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다. 그리스인들이 외면하는 우범지역도 마다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그들의 헌신으로 교회와 현지인 사역자들이 세워졌다. 배척이 낡은 상처를 사랑으로 품은 김수길, 조숙희 선교사 부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본다.



2편

바누아투로 간 사나이

- 원천희, 김난주 선교사

4월 12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바누아투 산토섬에서 사역 중인 원천희, 김난주 선교사.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13년간 산속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다. 곳곳이 정글이고 식수도 부족하다. 한 부족을 만나기 위해 멀게는 배로 여섯 시간, 걸어서 2박 3일이나 걸리는 거리를 왕래해야 할 만큼 계속해서 짐을 싸고 푸는 일이 일상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숨겨진 먼 곳이지만 뜻밖에 한국과 깊은 선교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120여 년 전, 이 지역의 노구구 마을에서는 조선에 선교사를 파송했다. 노구구 마을에서 사역하던 호주 선교사 제임스 노블 맥켄지는 주민들의 헌금으로 새로운 사역지 조선을 찾았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노구구 마을 주민들과 함께 교류하며 선교하고 있다. 그들과 함께하는 노구구 마을 주민들의 감회가 남다른 수밖에 없다. 120년을 관통하는 선교의 역사,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바누아투의 부족 선교 현장을 만나본다.



3편

우리가 사랑한 마지막 시간

- 필리핀 박누가 선교사

4월 26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생애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했던 故 박누가 선교사. 필리핀을 향한 그의 사랑은 남겨진 이들을 통해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 필리핀에서 30여 년 간 의료선교에 헌신한 박 선교사는 지난 2017년 CGNTV 다큐멘터리 <사랑하기 때문에>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소개됐다. 의료버스를 운행하며 필리핀 오지 곳곳을 찾아다녔고, 누가병원을 세워 가난하고 병든 필리핀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다. 특히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뒤에도 계속 사역을 이어나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소풍처럼, 여행처럼 다녔다"고 했던 박 선교사. 그의 육신은 필리핀을 떠나있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 역사를 만들고 있다.

▶ 다시보기 CGNTV 웹사이트(www.cgntv.net) / CGNTV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globalcgn)
▶ CGNTV 공식 블로그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cgnfriends)



SOON

청년들을 위한 진짜 인터뷰

진짜 인터뷰

유튜브 'CGNTV SOON' 채널에서 <진짜 인터뷰>를 공개했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바른' 대답 말고 멘토들의 삶이 담긴 '진짜' 대답을 담았다. 멘토들의 새로운 모습에 웃음이 터지다가도 어느새 진솔한 고백에 코끝이 찡해진다. 이 모든 일이 4분여의 짧은 시간에 일어난다는 게 <진짜 인터뷰>의 매력. 마치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듯한 자막과 음향 효과는 메시지의 매력을 더한다. 청년들을 위한 진짜 인터뷰, <진짜 인터뷰>의 매력을 세 가지 포인트로 살펴봤다.

#1. 청년을 위해

내일의 가능성이 넘쳐나는 청년이지만, 반대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고통스러워한다. 그 가운데에서 신앙, 연애, 비전, 취업, 자존감 등에 대한 고민은 마치 청년의 시기를 보내기 위한 통과의례와도 같다. <진짜 인터뷰>는 이런 청년들의 질문에 초점을 맞췄다. "크리스천의 연애와 결혼"으로 시작된 <진짜 인터뷰>는 사명, 비전, 자존감 등의 고민을 지나온 멘토들의 진솔한 고백으로 청년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2. 질문과 답변

<진짜 인터뷰>의 질문은 거창하지 않다. 첫 번째 결별 이후 연애에 회의를 느꼈다는 김남국 목사의 고백에 "그런데도 결혼은 하셨네요?"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담대한 마음을 갖는 법, 실패를 마주하는 방법 등 일반적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도 물어보기 어려웠던 질문을 한다. 덕분에 마음을 울리는 답변을 담아낸다. 개그맨으로 정점에 섰던 조혜련 집사는 도전과 성공, 그리고 성공 뒤에 숨어있는 공허함에 대해서 나눴다. 이어 세상이 채우지 못한 공허함을 말씀으로 가득 메웠다는 그의 고백은 청년에게 큰 도전이 된다. 5, 6편에 담긴 이성호 목사 역시 자신만의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진짜 답변을 내놓는다.

#3. 중년이 청년에게

<진짜 인터뷰>의 질문을 마주한 멘토들은 지금의 청년들을 보면서 자신의 청년 시절을 떠올린다. 그들 역시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그 시절을 지나왔기에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애정이 솟는다. 출연자들은 연애로 고민하는 청년들, 세상의 기준에 자신감을 잃은 청년들, 오늘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년들을 진심으로 헤아리며, 몸소 경험한 이야기들로 그들을 위로하고 응원을 전한다.

진짜 인터뷰

- 👍 다른 크리스천 연애에 관한 영상은 어느 순간 설교가 돼서 길어서 못 보겠는데 이걸 5분 내에 깔끔 명료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 - 크리스천의 연애 & 결혼)
- 👍 와 이때까지 봤던 영상 중에 젤 깔끔한 설명이에요. 여욕시 최고!!!
(*은 - 크리스천의 연애 & 결혼)
- 👍 목사님께서 눈물이 그렇그렇하시면서 버티십시오. 하시는 말씀에 사랑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네요. 저는 이제 청년에서 중년으로 넘어왔지만, 저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제 아이 양육하고 하나님 사랑 전하는 제자 되길 바랍니다.
(젠*니 Joyfuljen - 청년에게 맡겨진 최선의 준비)
- 👍 목사님 말씀 덕분에 나도 버틸 수 있구나 잘 버텨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열심히 준비하며 나아갈게요.
(신*민 - 청년에게 맡겨진 최선의 준비)
- 👍 예수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자유함 그 자체라는 것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y - 개그우먼 조혜련이 항상 도전했던 이유)
- 👍 속도 때문에 버거워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위로 주셔서 감사해요. ㅎㅎ
(* Unfailing Love - 개그우먼 조혜련이 항상 도전했던 이유)
- 👍 아멘!!!!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중도 포기하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마치 이렇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아 - 성경이 재미없는 당신에게)
- 👍 너무너무 멋지세요~ 지금 예능이고 어디 나가셔도 어느 누구 못지않을 예능인이신데...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린 모습에 정말 감동입니다!
(윤*영 - 성경이 재미없는 당신에게)

YouTube CGNTV SOON 진짜 인터뷰 검색

‘별’ 난 아이들을 ‘별’ 처럼 빛나게 〈계도왕〉, ‘규보쌤’과의 대화



2017년 페이스북 업로드 후 누적 조회수 864만 회를 기록했던 KNOCK 미니휴먼다큐 <I am 쌤>의 주인공, ‘별을 만드는 사람들’ 대표 ‘규보쌤’, 위기 청소년들을 감싸 안았던 남다른 포스의 그가 KNOCK 신규 콘텐츠 <계도왕>으로 돌아왔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계도(啓導)왕, 심규보 대표를 만나보았다.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하 별만사)’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별만사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학교 밖 청소년,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 범죄 피해 아동 등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별나다고 내몰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특별함을 찾도록 함께 하는 단체입니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변화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요?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 불안정한 환경 속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늘 곁에 있어주고 믿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용서해 줄 것 같은 누군가가 있으면 아이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시작합니다. 물론 가끔은 믿어주는 것을 악용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그러다 호구 된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아이들에게 호구가 되어주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호구의 또 다른 의미로 김도에서 쓰는 보호 장비라는 뜻이 있는데, 저는 언제든지 아이들을 보호하는 호구가 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단체를 세우셨고, 저를 세우셨거든요. 그러다보면 언젠가는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복음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물론 처음부터 할렐루야를 외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본인 자신만을 믿고 살아온 일명 ‘나’ 신론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매우 천천히,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 저 사람이 좋은 어른인데, 좋은 크리스천이기도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좋은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점점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찬양을 흥얼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워낙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기까지는 어렵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간 후, 삶이 눈에 띄게 달라진 친구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별만사’ 처음으로 신학대학교 원서를 쓴 진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진현이의 꿈은 나중에 ‘별만사’ 교회의 전도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학을 강요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갑자기 이 친구가 수련회를 다녀오더니, “쌤, 사람들이 술도 안 마셨는데 춤추고 노래해요.”라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런 것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또한 진현이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모두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사역의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별만사’가 위치한 대구는 특히 코로나19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 일로 인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만사’도 휴관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보호자가 없어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아이들이 많았으니 마스크와 생필품을 직접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건강도 살펴주며 집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아이들의 검정고시도 있는데,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부디 속히 진정되길 바라봅니다.

<계도왕>을 보실 시청자 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I am 쌤>에서는 저를 중심으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의 사역이 주로 소개됐다면, 이번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주로 다뤄지는데요. 부디 예수님의 눈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국 15주년, 미디어 선교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CGNTV의 새로운 비전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VISION

“차별화된 복음 콘텐츠와
맞춤형 플랫폼으로
미디어 선교의
내일을 여는 CGNTV”

순수복음방송을 위한 미디어 선교 사역에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시는 3만 5천 여 후원자 및 시청자 여러분. CGNTV 이용경 대표입니다. CGNTV는 지난 2005년 개국한 이래 위성을 통해 170여 개국에 방송을 송출하며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께 영적인 양식을 공급했고, 선교지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를 흘려보냈습니다. 이처럼 한 영혼이라도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미디어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CGNTV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입니다. 지금도 170여 명의 직원들은 '미디어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품고 24시간 쉼 없는 방송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입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그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선교사의 동역자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시대적 흐름과 시청자들의 긴급한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합니다.

개국 15주년을 맞는 CGNTV는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본질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근본이 공격받고, 말씀의 권위가 도전받는 이 시대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말씀과 예배, 기도가 바로 서야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지고, 건강한 교회공동체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를 제작해 방송중입니다. 전문가의 풍성한 배경설명, 생동감 있는 삽화와 함께 매일 하루 20분씩 말씀을 따라 읽다보면 한해 동안 성경 일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는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외국어 버전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또 예배로 온전한 가정을 세워가는 프로그램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는 올해 더 많은 가정들을 만나 교제하며 가정예배 회복 캠페인을 이어갑니다.



꾸준히 차세대를 위한 콘텐츠를 제작해오던 CGNTV에서는 앞으로도 모바일 맞춤 콘텐츠 제작을 확대해 차세대와의 접점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차세대는 유튜브 영상으로 대부분의 정보습득과 여가시간을 활용합니다. 특히 10대~20대의 약 84%는 스마트폰을 통해 동영상 시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반영해 그들의 영상 문법에 맞는 형태로 메시지를 재가공하고, 관심사와 기호에 맞춰 장르를 개척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과 찬양, 간증 등을 트렌드에 맞춰 짧은 포맷으로 편집한 <SOON> 콘텐츠, 조셉 붓소의 거리 전도 프로젝트 <붓소헌법> 시리즈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GNTV는 복음 메시지와 감동을 담은 콘텐츠로 차세대를 깨우는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CGNTV 플랫폼의 상징이었던 '드림온 안테나' 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존부터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어디서나 위성 안테나만 있으면 CGNTV를 볼 수 있지만, 인터넷 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을 위해서는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시청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는 셋탑박스형 수신기 '드림온 플러스'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드림온 플러스'로 인터넷이 연결된 곳 어디서든지 CGNTV 한국/미주/일본/중문 4개 채널을 HD 화질로 시청할 수 있고, 안테나 설치 및 A/S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추후 VOD 서비스도 추가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콘텐츠를 다시 볼 수 있는 편의성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위성과 인터넷으로 시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며 24시간 365일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드림온 플러스'를 통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복된 소식이 더 편만하고 촘촘하게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초에는 CGNTV의 모든 콘텐츠 노하우를 녹여낸 '미디어 라이브러리(가제)'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나눔을 위해 준비 중인 이 플랫폼은 크리스천의 균형 잡힌 신앙 성장을 위해 AI 기술을 접목시켜 개인별 맞춤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2021년 1월에 공개될 미디어 라이브러리가 한국교회의 자산으로 활용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최근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가치관이 무너지고 불확실성이 더해가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CGNTV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광고 없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CGNTV 모든 구성원이 말씀과 기도, 예배 등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고자 합니다. 또 기도로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한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CGNTV의 3만 5천 후원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동역해 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구하며, 코로나19가 속히 극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디어 선교사입니다!

CGNTV 외국인 직원 인터뷰

CGNTV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직원들이 있다.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 동역하는 그들의 모습은 전 세계 170여 개국으로 전파를 보내는 CGNTV와 많이 닮았다. 선교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들과의 동역.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와 언어가 다를 뿐 그들 모두 같은 은혜, 같은 부르심으로 모였다는 사실이다. 미디어 선교사로 모인 CGNTV 외국인 직원들의 그 은혜를 들어봤다.

나와 같은 한 영혼을 위해

Ana Patricia Ayala Cuellar(아나, 웹미디어팀/엘살바도르)

아나는 엘살바도르에서 왔다. 한국어를 배우고 전공인 수의학 석사과정을 밟기 위해 한국에 왔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CGNTV 웹미디어팀에서 미디어 선교를 하고 있다. 한국, 일본, 중문 웹사이트에 방송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여타 지사 사이트들의 콘텐츠 상황도 점검한다. 웹사이트를 통한 콘텐츠만큼은 그의 수고를 거쳐 보다 원활하게 소개되는 것이다.

아나는 졸업 후 전공을 살려 좋은 조건의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CGNTV의 슬로건인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라는 문구를 접하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도 끝에 아나는 CGNTV에서 미디어 선교사로의 사역을 시작했다.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아나는 일 년여 간 예배를 못 드렸다. 한국어가 서툴러 주변 교회에 나갈 수도 없었고, 영어예배를 드릴 곳도 마땅치 않았다. 그러던 중, 떠오른 것이 유튜브였다. 아나는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다. CGNTV가 찾는 바로 그 '한 영혼'이었던 셈이다. 그는 유독 미디어에 관한 은혜의 기억이 많았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라디오를 통해 들었던 찬양 덕분이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 곁에서 자주 라디오를 들었던 그는 "예수님의 빛을 너의 삶에 비춰라"라는 찬양의 가사가 귀에 들어왔다. 삶이 바뀌는 경험이었다. 이에 그는 복음 콘텐츠를 전하는 자신의 일을 통해서도 누군가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늘 바라고 있다.

아나는 CGNTV의 특별한 점을 '아침 직원 예배'로 꼽았다. 국적과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좋았다. 아직 참여해보지 못한 '직원 아웃리치'도 기대된다. 방송으로만 섭졌던 국내외 많은 영혼들을 꼭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다.



더 분명한 비전

吳璘函(오린함, 해외채널팀/대만)

대만에서 온 오린함 사원은 해외채널팀에서 중문 파트의 기획업무
를 담당하고 있다. 중화권 이슈에 늘 주목하며 현지인들에게 필요한
복음 콘텐츠를 고민한다. CGNTV에서 일하면서 고국인 대만 선교에
더 힘쓰게 된 셈이다. 그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으
로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중화권을 향한 보다 구체적인 비전이 생
겼다”고 했다.

입사 전부터 그는 선교 사역을 사모해왔다. 친언니에게 복음을 듣고
우울했던 일상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누구보다 복음 전파
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어학연수가 끝난 후에도 한국에 계속 남아있
는 결정을 하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
라에서 훈련받고, 동역하고 싶었다.

대만에서도 그는 ‘Create International Taiwan’이라는 단체를 통해 영
상으로 복음을 전했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
요 내용이었고, 미국, 한국, 캐나다, 마다가스카르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동역했다. 이 사역을 계기로 그는 미디어 선교의 가치를 실
감했다. 이후 그는 미디어 선교 사역을 두고 기도했고, CGNTV는 그
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이었다.

매일 아침 예배, 기도회, 큐티 등을 통해 말씀을 일에 적용하고자 애
쓰는 동료들도 특별한 만남이었다. ‘러브소나타’, ‘아웃리치’ 등을
통해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도 인상적이었다. 언어가 달라 소
통이 어려웠던 자신을 위해 하고자 하는 말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반응해 준 동료들의 모습도 고마웠다. 그는 더 이상 한국
어로 회의하는 게 불편하지 않다. 오린함 사원은 한국에 왔을 때의
기도대로, CGNTV에서 동역하고 훈련하며 중화권 미디어 선교에 귀
하게 쓰임 받고 있는 중이다.



일본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西田 かおり(니시다 카오리, 일본CGNTV 소셜미디어팀/일본)

일본 CGNTV에서 일하고 있는 카오리는 프로그램 <You are special>
의 출연자였다. 일본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내용
으로, 당시 그는 예술가를 꿈꾸며 “내가 만드는 작품으로 하나님을
전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일본 CGNTV에서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제작과 디자인을 담당하며 그 비전의 첫발을 떼었다. 그는 “소셜미
디어 콘텐츠와 관련 디자인도 예수님을 만나는 ‘시작’이 될 수 있다”
며, “일할 때마다 매번 그 한 사람을 생각한다”고 했다.

‘향기’를 뜻하는 이름의 ‘카오리’는 일본에선 보기 드문 모태신앙이
다. 이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마음을 담아 부모님이 지어주
셨다. 그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원한다. 카오리는 한국 유
학시절에 참석했던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진로에 대
해 앞이 보이지 않아 기도하던 중 만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는 하나
님께 인생을 드리기로 결심했다.

일본 CGNTV 사역도 그에 따른 주님의 부르심이었다. 사역을 통해
카오리는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에서 일본 교회들의 크고 작은 변화
들과 함께하고 있다. 10분 강단 촬영을 위해 전국 47개 현에 있는 목
회자들을 찾아갈 때면 일본 부흥을 더욱 소망하게 된다. 카오리의 기
도제목은 일본 CGNTV와 일본교회가 협력해 일본의 복음화에 온전
히 쓰임 받기를, 시대에 맞고 일본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작
할 수 있기를, 또 자신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은 ‘맞춤형 카오리’
가 되는 것이다.

카오리가 좋아하는 한국어 중에 ‘챙기다’가 있다. 한국인 동역자들의 챙
겨주는 모습을 보며 한국만의 ‘정’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
다. 후원자들의 기도와 후원에서도 바다 건너까지 그 사랑이 다가온다.



▶ 인터뷰 전체 내용은 CGNTV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디어 선교사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 더 멀리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미디어 선교사 CGNTV 직원들의 마음입니다.
매일 예배하고 기도하며,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
“우리는 미디어 선교사입니다.”



CGNTV 국내뉴스



CGNTV 개국 15주년&두란노서원 창립 40주년 특강 <여호와께 돌아가자>

CGNTV가 개국 15주년을 맞아 두란노바이블칼리지와 함께 특강 <여호와께 돌아가자> 시리즈를 방송한다. 지난 1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 첫 번째 특강 <C.S.루이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C.S.루이스의 변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많은 청중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와 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 박성일 담임목사가 강사로 나섰다. 이 특강은 오는 4월 2일부터 CGNTV를 통해 방송된다. 이어 6월,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김용태 소장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위한 마음치유>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9월에는 금호중앙교회에서 김숙경 소장, 황규복 목사의 <부부 토크쇼 - 사랑과 사연을 나누는 블레싱 U>가 진행되어 부부와 가정의 회복을 돕는다. 향후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담임목사의 강의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함께 고민하는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다. 앞으로 진행될 세미나 일정은 CGNTV 웹사이트,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GNTV와 두란노바이블칼리지는 우리 삶에 가장 기본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위해 이번 특강 시리즈를 기획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신앙 성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 꾸준히 관련 콘텐츠를 기획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모금 <사랑으로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에 CGNTV는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모금 <사랑으로 함께>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다. 가정환경이 어려워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가정부터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미자립교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손길이 모였다. 사랑으로 모인 후원금 전액은 방역 취약계층과 미자립교회를 위해 사용된다.



한편, CGNTV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월-토 오후 9시에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를 편성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 신앙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위해 예배와 차세대 콘텐츠를 추가 편성하는 등 시청자의 영적 회복을 위한 콘텐츠 공급에도 힘을 쏟고 있다.

CGNTV 녹음실 리뉴얼

지난 3월 10일 CGNTV의 새로운 녹음실에서의 첫 녹음이 진행됐다. 지난 2월 말 리뉴얼 된 새로운 녹음실은 넓은 공간과 쾌적한 환경으로 기존의 시설에 비해 작업 효율이 크게 높아졌다. 이 녹음실은 CGNTV를 사랑하는故 운영민 성도의 뜻을 기리는 가족의 헌신을 담아 건립되었다. 기존의 녹음실은 개조 공사를 통해 일반 사무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새로운 녹음실의 첫 주인공이 된 <예수님이 좋아요> 팀은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프로그램의 역사와 함께한 장광 장로는 "탁 트인 곳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라며 감격스러워했다. 성병숙 집사 역시 "아늑하고 쾌적하다"며 기뻐했다. 고경섭 집사는 "새 녹음실에서 함께 마주보며 녹음하니 호흡을 맞추기 더 좋다"며 새로운 녹음실에 대한 기쁨과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인도네시아 홍수 피해 직원 돕기 모금 운동

CGNTV 본사 직원들이 홍수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 지사 직원들을 돕기 위해 자체적인 모금 운동을 진행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도로 및 차량, 주택 등이 침수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본사 직원들은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모금을 진행했고, 일부 직원들은 자신의 소장품을 내놓으며 훈훈함을 더했다. 모금된 기부금 전액은 인도네시아 지사 직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전달됐다.

(주)지에스씨글로벌세이프, CGNTV에 마스크 후원

(주)지에스씨글로벌세이프(대표 이주현)가 CGNTV 직원들을 위해 마스크 500장을 후원했다. 이주현 대표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미디어 사역에 더욱 힘쓰고 있는 CGNTV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후원을 결정했다. 이주현 대표는 "CGNTV 직원들의 '미디어 선교' 사역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CGNTV를 섬기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CGNTV 주용현 경영국장은 "(주)지에스씨글로벌세이프와 이주현 대표의 소중한 마음을 받아 미디어 선교에 더욱 정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후원된 마스크는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달됐다.



CGNTV 해외뉴스



일본 CGNTV_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큐 제작

일본 CGNTV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순례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다. 대담 프로그램 <살롬 이스라엘>(일본 CGNTV 제작)에 출연했던 '스티브스 에이코', '아지마 토다로'와 3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떠나는 생생한 성지순례 동행 현장을 담는다. 성경 속 유적들 및 순례를 통한 참가자들의 변화 등을 소개한다. 지난 2월 열흘간 진행된 성지순례를 담은 다큐멘터리는 오는 5월 방송 예정이다. 일본 CGNTV는 이스라엘을 테마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제작해 선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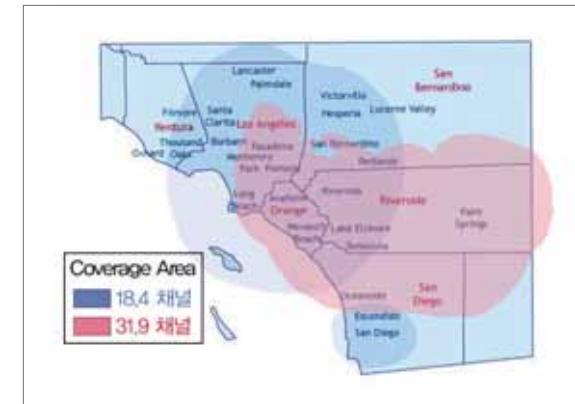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CGNTV_ (FCBH), <UPLOVE> 프로그램 제작

인도네시아 CGNTV에서 사회 선교 캠페인 프로그램 <UPLOVE>(Upload Your Love)를 제작해 지난 3월 4일부터 CGNTV Indonesia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 중이다. 인도네시아 현지 교회와 협력한 이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 교회가 사회선교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을 모토로 모든 종족의 언어로 오디오 바이블을 제작하는 FCBH의 사역을 담은 특집 다큐멘터리 <FCBH(Faith Comes by Hearing)>도 제작 중이다.



대만 CGNTV_유튜브 채널 '소확행' 오픈

중화권 시청자들을 위한 새로운 유튜브 채널 '소확행(小確幸, Happiness)'이 3월 1일 오픈했다. 시청자들의 관심 분야를 고려해 '가정', '차세대', '개인의 영적 성장' 등을 주제로 5분 이내의 영상을 선보인다. 접근성이 좋은 유튜브의 특성을 토대로 시청자들과 보다 가깝게 소통할 계획이다. 대만 CGNTV는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이 잘 전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미주 CGNTV_남가주 공중파 채널 변경

남가주 지역 공중파 채널이 오는 5월 1일부터 18.4에서 31.9채널로 변경된다. 방송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 시청 지역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미주 지역 선교를 위한 기존 다양한 영적 콘텐츠들은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도 변함없이 소개될 예정이다. 미주 CGNTV는 공중파 채널 외에도 앱(CGNTV America), 홈페이지(www.cgnfoundation.com), 유튜브(CGNTV America) 등을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한편, CGNTV에서는 인터넷이 닿는 곳이면 어디서나 CGNTV를 HD 화질로 시청할 수 있는 '드림온 플러스'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드림온 플러스'를 통해 남가주 지역은 물론 미 전역에서 전용 수신기를 설치해 CGNTV를 시청할 수 있다.

태국 CGNTV_신규 <Talk With> 방송

태국 CGNTV에서 제작한 신규 프로그램 <Talk With>가 3월 말부터 방송된다. 지난해 방송됐던 간증 프로그램 <The 12>의 후속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 태국의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의 생생한 힘을 전할 예정이다.



CGNTV
프로그램
편성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5:00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05:4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06:2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6:50 생방송 주일예배(1부) 08:2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9:00 생방송 주일예배(2부) 10:3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1:10 붓소헨섭 11:30 생방송 주일예배(3부)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6: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7:00 [말씀]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07:40 [말씀]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08:20 목사들의 복수(복음수다) 08: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09:00 [말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11: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경산중앙교회- 11: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6: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7:00 [말씀] 권성수 목사(대구동신교회) 07:40 [말씀]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08:20 CGNTV 맞춤형 <나침반> 08: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아침운동) 09:0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0:20 [말씀] 조봉희 목사(지구촌교회) 11: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동래중앙교회- 11:20 믿음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한국순례기>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6: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7:0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07:40 [말씀] 김정우 목사(동산교회) 08:20 나침반 바이블 08: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09:0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0:20 [말씀]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11: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상당교회- 11:20 온누리교회 수요여성메시지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6: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7:0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07:4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8:20 나침반 바이블 08: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09:00 [말씀]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 10:2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11: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수영로교회- 11:2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6: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7:0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07:4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08:20 나침반 플러스 08: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아침운동) 09:00 [말씀] 이용조 목사(갈보리교회) 10:20 이재훈 목사의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 11:0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 -한성교회- 11:2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05:00 생명의 삶 05:20 생방송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6: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8:20 [말씀] 하용조 목사의 성령의 사람 11:00 목사들의 복수(복음수다) 11: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3:20 어린이예배 13:50 생방송 주일예배(4부) 15:2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6:00 목사들의 복수(복음수다) 16:30 전센 프랭클린의 부흥 17:0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17:4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2:00 CGN 투데이 12:2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3:4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4:50 [말씀] 박성민 목사 (한국대학생교회) 16:10 [다큐멘터리] 오두막 그 후 16:40 [말씀] 류응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17:20 존 파이퍼의 더 바이블 17:5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12:00 CGN 투데이 12:20 [말씀]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13:0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13:4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 14:50 [말씀] 박신웅 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6:10 목사들의 복수(복음수다) 16:40 [말씀]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17:20 크레이그 그로셴의 예수님이 가라사대 17:5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2:00 CGN 투데이 12:2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항남교회) 13:00 [말씀] 임재영 목사(서부성결교회) 13:4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4:5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16:1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16:40 [말씀] 박성일 목사 (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17:20 데이비드 플랫의 시크릿처치 17:5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2:00 CGN 투데이 12:2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13:0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13:4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14:50 [말씀] 양춘길 목사 (필그림선교회) 16:40 [말씀] 최경욱 목사 (또감사선교회) 17:20 카일 아들먼의 포기하지 말라 17:5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12:00 CGN 투데이 12:20 [말씀] 장덕순 목사(이리신광교회) 13:00 [말씀] 마크최 목사 (뉴저지온누리교회) 13:4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14:50 [말씀] 이주연 목사(산마루교회) 15:30 [세미나] 박성심 사모의 연애, 결혼, 가정 16:40 [말씀] 김용훈 목사 (열린문장로교회) 17:50 [다큐멘터리] 오두막 그 후	12:1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13:00 [다큐멘터리] 오두막 그 후 13:30 예수님이 좋아요 14:40 [말씀]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15: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16:4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18:2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19:00 생방송 열린새신자예배 20:3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21: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1:40 온누리교회 주일예배(본방) 23:00 [다큐멘터리] 오두막 그 후	18:20 믿음의 고백, 찬송이 되다 18:30 [말씀]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19:50 [세미나] 크리스천의 결혼과 가정 20:3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21: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1: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22:00 [컨퍼런스] 돌보는 교회 - 학대에 대응하기 22:30 표인봉, 윤유선의 하늘빛향기 23:1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00:50 [세미나] 기독교 세계관 아카데미	18:30 [말씀]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19:50 [세미나] 2020 대학청년부 리더십 수련회 The One 21: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1: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22:00 전센 프랭클린의 부흥 22:30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 패밀리 23:10 [세미나] 마리아나 황 교수의 글로벌 시대 자녀를 위한 세계관 00:50 김용의 선교사의 다시복음앞에	18:3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19:10 [말씀] 서정오 목사(동송교회) 19:50 [세미나] GCM 복음도시운동 세미나 21: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1: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22:00 케빈 드영의 요한복음 1장 22:30 떠나보면 알게되는 <여행의 이유> 23:10 [세미나] 교회, 통일시대를 준비하라	18:30 [말씀] 김형의 목사(벤살롬교회) 19:10 [말씀] 최병락 목사 (강남중앙침례교회) 19:50 [세미나] C.S 루이스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21: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1: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22:00 스티븐 엄의 예수님을 따르다 22:3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18:30 [말씀] 박완철 목사 (남서울은혜교회) 19:1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항남교회) 19:50 [세미나] 2019 TGC 코리아 컨퍼런스 <하나님이 가라사대> 21: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1:50 정주호가 건강을 응원합니다 (저녁운동) 22:00 R.T. 켄달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22:30 청년전도프로젝트 <RUN> 23:10 CGN 비전특강	18:00 [말씀] 김정우 목사(동산교회) 18:40 손기철 장로의 말씀치유집회 19:40 미니콘서트 험 19:50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실천 편> 20:30 김영우의 스윗사운즈 21: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1:4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구약 편> 00:50 [세미나] 2019 마리아행전

미디어 선교의 선한 영향력

모처럼 서울에 눈이 왔다고 어린아이처럼 다들 설레던 어느 날, 화면에 낯선 번호와 함께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만이 아니라 목소리도 낯설었다. 하지만, 두세 번의 대화가 채 오가기 전에 떠오르던 얼굴이 있었다. 벌써 26년 전, 처음으로 교육 전도사로 시무하던 교회의 같은 부서 선생님이었다. 지금은 지방 어느 도시에 살면서 자그마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권사님이 되셨다는 그분은 조금 머뭇거리면서 안부를 물으시더니 방송에서 보고 반가운 마음에 여러 군데 수소문을 하셔서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을 했노라고 수줍은 듯 웃으신다.

갑자기 그 초보 전도사 시절 생각이 많이 났다. 처음으로 교육 전도사 사역을 나간 26년 전,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되던 날들이었는데, 부서의 많은 선생님들과 즐겁게 대화하며 정말이지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때가 생각났다. 젊다 못해 어린 전도사에게 이런저런 신앙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물으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함께 웃으며, 눈물도 흘리며 나누었던 진심 어린 대화의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교역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부담 때문인가? 아니면, 겉멋이 들었거나 품을 잡으려다 그랬나? 편안하고 즐겁게 진솔한 '수다'를 나누는 교제가 점점 더 어색해졌나 보다.

그러다 어느 날, '목사들의 수다' 자리에 청함을 받았다. 정확하게는 <목사들의 복음 수다>. 수다도 어색한데, '꼭' 복. 음. 적. 이어야 하나보다! 게다가 상대가 대부분 기라성 같은 교계의 선배 목사들이시란다! 이래저래 걱정이 앞섰다. 작가는 글로 말하고, 가수는 노래로 말하고, 목사는 설교로 말하는 사람이라 하시며, 설교하며 말씀 전하는 기회 외에는 언제나 언행을 조심하라 하시던 신학교 교수님이 떠올랐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조신하게 설교 말씀 잘 전하는 목사님을 늘 떠올리고 기대할 텐데...' 혹시나 수다 떨다가 실수나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 많음이 꼭 어머니를 닮았는지, 생각이 많아졌다.

20주에 걸쳐 방송될 열 번의 녹화 일정이 잡혔고, 교단을 망라한 훌륭한 목사님들과의 귀한 만남의 자리가 약속되었다. 초면인 분들도 적지 않아서 더 긴장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목사의 가정에서 있을 자녀 이야기, 부부 이야기를 주제로 한 첫 녹화부터 그간의 염려가 기우였음이 잘 드러났다. 종종, 카메라가 돌고 있다는 생각을 잊을 정도의 편안함은 물론이고, 받아 적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 애를 써야 할 만큼 귀하고 좋은 대화가 회를 거듭할수록 이어졌다. 때로는 소명을 불일듯 일으켰고, 때로는 위로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었다. 목사님들과의 목회 이야기, 사명 이야기, 교회의 책임과 역할, 그리고 가정과 삶에 관한 풍성한 대화의 열기는 녹화하는 내내 식을

“ 방송은 어느새 이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통하게 해주며,
성도와 이웃이 은혜의 교제를 나누게 해준다. ”

줄을 몰랐다. 복음으로 잘 채워진 수다 한 마당은 몸과 마음을 시원케 해주기에 충분했다.

녹화가 몇 차례 있은 후, 첫 방송이 시작되자, 슬슬 걱정도 함께 찾아왔다. '우리끼리는 즐거운 수다였는데 시청자들에게는 어땠을까?' 다행히 반응이 괜찮게 느껴졌다. 물론, 듣기 좋은 인사였을 것이라 감안(?)을 하더라도 동료, 선배 목사님들의 시청 소감은 또 다른 '복음 수다'로 이어졌다.

여러 교우들의 반응은 더 뜻밖이었다. 설교로, 성경공부와 심방으로, 어쩌면 어렵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거리가 느껴지기 쉬운 목사님들이 편안하게 나누는 대화는 그보다 몇 배는 더 마음을 열고 함께 복음으로 대화하도록 해주었나 보다.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알아보시는 분도 있고, 음식점에서 낯선 다른 교인으로부터 대접을 받기도 했다. 다들 웃으며 "목사님들 대화에 은혜도 받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기쁨이 오래도록 이어졌다.

방송은 어느새 이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교통하게 해주며, 성도와 이웃이 은혜의 교제를 나누게 해준다.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 동역자들과는 비전과 소망을 함께 나누게도 하고 우리 모두가 한 몸된 교회요, 사명 공동체임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 이 귀한 사역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힘 있게 감당하시는 귀한 방송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며,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협력하는 가운데 귀한 복음의 수다가 계속 이어지길 꿈꿔본다.

영화교회 윤광서 담임목사



후원안내 CGNTV는 오직 후원으로 운영되는 '순수복음방송'입니다.
여러분의 귀한 후원은 힘있는 복음 방송의 밑거름이 돼
선교지 한 영혼에게 새 생명을 꽃피울 것입니다.

■ CGNTV 방송사역 후원방법 안내

* 후원신청방법

1. 전화신청 02-796-2243
2. 인터넷 신청 www.cgntv.net **우측상단 후원하기 클릭**
3. 모바일 신청 m.cgntv.net **후원하기 클릭**

* 후원방식

1. 정기후원신청
 - 통장자동이체 • 신용카드 정기후원
2. 일시후원신청
 - 계좌이체 or 무통장입금 / 신용카드 / 휴대폰결제 / 실시간 계좌이체
 - **ARS 후원 060-705-0000** (한 통화 7천원)

* 후원계좌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 하나은행 573-910002-67804
- 우리은행 1005-801-017847
- 국민은행 225101-04-006695
- 농협 301-0072-3639-01

* 해외지사 후원

- 하나은행 573-910007-48104
- 예금주 : (재)온누리선교재단

CGNTV 실행위원회 배종수(실행위원장), 김용기, 김중건, 김종성, 김희준, 이광형, 이인용, 장규환, 정운섭

CGNTV 운영위원회

정상건(운영위원장), 강경국, 강기석, 강상훈, 강신익, 강종도, 고미애, 고현준, 곽승남, 구재영, 국정숙, 권득한, 권영빈, 김관근, 김관식, 김근철, 김명세, 김명철A, 김명철B, 김석인, 김선래, 김성균, 김성목, 김성진, 김수영, 김순영, 김신원, 김영미, 김영환, 김영희, 김용성, 김원규, 김원규, 김 인, 김인겸, 김장렬, 김정훈, 김종수, 김종호, 김준홍, 김현중, 김형식, 김홍국, 김희준, 나영욱, 남경화, 남상욱, 문성준, 문애란, 문영기, 박상승, 박성호, 박영한, 박은정, 박이철, 박장순, 박재두, 박지수, 박진두, 박찬구, 박현규, 방찬중, 배병태, 백종신, 서명수, 서서열, 서정호, 서준희, 신우석, 성필호, 손제열, 손태용, 손한기, 송동섭, 신수은, 신철우, 심광명, 심상달, 심희돈, 안대륜, 안해욱, 양유식, 양재수, 양주현, 오도훈, 오 명, 오범규, 오이식, 우시정, 유병진, 유영섭, 유익준, 유이상, 윤석우, 윤영각, 윤원식, 윤유인, 이경석, 이경호, 이관수, 이국주, 이남식, 이동엽, 이백음, 이서정, 이석일, 이영태, 이영희, 이윤만, 이윤성, 이은경, 이일표, 이일형, 이창환, 이철원, 이춘희, 이학일, 이희경, 이희연, 임동욱, 임상범, 임성택, 임진욱, 임창빈, 장 광, 장정심, 정상기, 정윤희, 정재민, 정진호, 조성현, 조영준, 조영진, 주영재, 지성한, 진삼하, 채수삼, 최남용, 최도성, 최동환, 최정수, 최훈학, 한상규, 한상준, 한창격, 한형식, 함일성, 홍혜실, 황광석, 황상윤

CGNTV 시청방법 CGNTV와 만나는 다양한 방법
24시간 당신을 위한 감동과 함께 하십시오.

위성TV

- ▶ 국내 설치비용 : 30만원 (월 수신료 없음)
- ▶ 해외 설치비용 : 평균 \$200-500
(예) 인도네시아 16만원 / 남아공, 몽골 80만원
- ※ 복음에 소외된 선교지에 직접 안테나를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573-910007-69605(예금주: 재단법인 온누리선교재단)

케이블TV

- ▶ LG HealthVision ch.322번 (디지털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D'LIVE ch.304번 (디지털 HD 프리미엄 고급형 상품)
- ▶ CS 푸른방송 ch.159번 (프리미엄형 상품)
- ▶ 현대 HCN ch.550번 (프리미엄형 상품)

IPTV

- ▶ o!leh G ch.237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0번)
- ▶ SK B tv ch.302번 (가입문의: 02-6269-7979)
- ▶ LG U ch.271번 (가입문의: 국번없이 101번)

모바일 앱

1. CGNTV Live
 - 이용방법 : 스토어에서 'CGNTV Live'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무료)
2. 팟캐스트
 - 이용방법 : 어플 설치 (아이폰: Podcast / 안드로이드폰: 팟빵) → CGNTV 검색 → 프로그램 선택

CGNTV 웹사이트

CGNTV 웹사이트에서는 고품질 Live 방송과 다시보기가 가능합니다.
- CGNTV 웹사이트 : www.cgntv.net
- 모바일 웹 : m.cgntv.net

CGNTV 유튜브 채널 및 페이스북

CGNTV 소셜&오픈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영상을 시청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 YouTube** 'CGNTV', 'CGNTV SOON', 'KNOCK노크', '붓소한섭' 검색
- facebook** 'CGNTV', 'KNOCK노크' 검색

※ 기타 시청문의 02-796-9800



CGN투데이가 선보이는 새로운 뉴스쇼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연결합니다



금요일 낮 12시 방송 | 진행 오도훈 주영희

유튜브에서 CGN투데이 하세요